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8. 3. 14.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창기, 사무관 정재원 • ☎ (044) 201-3934, 4146	
보 도 일 시		2019년 3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4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 조성...15일부터 공모 대전-세종 첨단도로(C-ITS) 시범사업 구간 개방...운영실적·검증데이터 확보 등 지원

- * (사례 1) A업체는 지난해 개발한 도로 위 사고상황 검지기술을 현장에서 검증 희망
- * (사례 2) B업체는 자율협력주행에 활용되는 통신단말기 제작에 성공했으나, 운영실적, 실증경험 등을 요구하는 수요처가 많아 납품에 애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 9월까지 대전~세종 첨단도로(C-ITS*) 시범사업 구간에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(리빙랩)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공모를 착수한다.

*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: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, 차량-기반시설(이하 인프라) 간 통신으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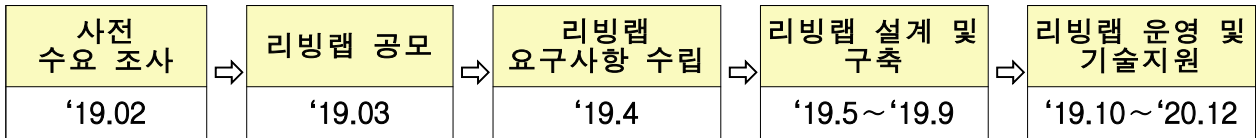
- '14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 간, 차량·인프라 간 실시간 협력(통신)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(대전~세종, 88km) 하고 교통안전 서비스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검증해왔다.



- 이번 리빙랩 구축사업은 그간 시범사업에 사용되던 대전~세종 첨단도로(도로변 검지기 등) 수집 데이터를 민간(업체)에 개방하고, 업계수요를 받아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.

※ 연구개발(R&D) 참여기관이 개발기술의 현장시험 목적으로 시험공간을 구축·운영하는 사례는 있었으나, 기존 공간에 제3자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은 국내 최초

< 리빙랩 구축·운영 추진일정 >



*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-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실제 도로 기반의 시험공간을 통해 기존의 개발기술 또는 발굴한 신규서비스를 검증한다.

* 例) 사업관리기관은 2~3개 교차로에 VISION(카메라), 라이다(LiDAR), 레이더, 등 도로변 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기를 통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가공하여 업체에 제공

※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도 구축된 인프라 수집데이터 활용 가능

- 공모는 개발된 기술의 시험지원을 위한 ①기술적용,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②서비스혁신,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③자유제안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.

- 공모절차는 서류평가, 발표평가로 순으로 진행되며,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.c-its.kr 또는 문의처(☎044-211-3218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-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“이번 리빙랩 사업이 기업들의 실험실 수준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기술적·경험적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면서,

- “아울러, 업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운영실적, 검증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,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39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